

일본 경제 동향_2017년 8월

(하반기 이후 일본경제전망)

< 목 차 >

I . 일본 경제 지표	1
II .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내수주도의 회복기조	2
2.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6
3. 엔저·주가보합·금리상승	8
4. 해외직접투자 감소	10
III . 일본의 주요 정책	11
1. 하반기 이후 일본경제전망	11
2. AI용 반도체에 대한 개발지원	13
IV .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대일 무역적자 감소	16
2. 일본인 직접투자 3분기 연속 증가	18
V . 참고 자료	20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
2. 주요 경제 일정	22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5	2016	2016		2017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경기 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117.1	115.8	117.2	-
GDP증가율(연율,%)	1.2	1.0	1.2	1.2	1.0	4.0p)	-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70.1	75.9	19.9	20.5	24.0	19.4p)	-	-	-
		23.4	24.3	6.1	7.2	7.2	5.5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0.0	68.2	18.6	17.1	20.8	10.3	3.3	3.7	3.5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5	△0.3	0.0	0.2	0.3	0.2	0.4	0.2	-0.1
	전년동기비	0.5	△0.3	△0.5	△0.3	0.2	0.4	0.3	0.4	0.4
실업률(%)		3.4	3.4	3.0	3.1	2.9	2.9	2.8	3.1	2.8
수출(조엔)		75.6	70.0	17.0	18.6	19.0	18.8	6.3	5.9	6.6
수입(조엔)		78.5	66.0	16.0	17.2	18.6	18.1	5.8	6.1	6.2
무역수지(조엔)		△2.9	4.1	1.0	1.4	0.4	0.7	0.5	-0.2	0.4
경상수지(조엔)		16.4	20.6	5.7	4.2	5.8	4.6	2.0	1.7	0.9
환율	달러	121.1	108.8	102.4	109.4	113.6	111.1	110.1	112.2	110.9
	원화(100엔)	935	1,068	1,095	1,059	1,015.7	1,020	1,029	1,003	1,029
금리(10년물,%)		0.36	△0.051	△0.128	△0.007	0.072	0.044	0.029	0.039	0.064
주가(닛케이)		19,203	16,920	16,500	17,951	19,241	19,503	18,736	19,727	20,046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내수주도의 회복기조

- '17.6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7.2로 전월비 1.4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하락

- '17.6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4,188억 엔 흑자

- '17.7월 수출은 6조 4,949억 엔, 수입은 6조 761억 엔

☐ (환율) 엔고 반전

- '17.7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2.4 엔으로 전월비 1.4% 엔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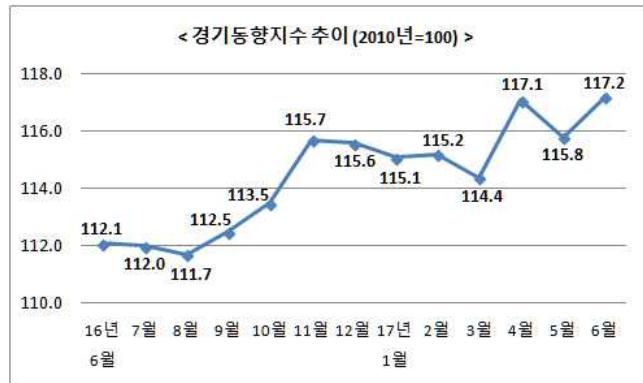
* '17.7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09원으로 전월비 1.9%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내수주도의 회복기조

□ (경기기조 판단)

- 경기는 내수를 견인하면서 회복세를 지속
 - 수출은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생산 활동은 회복되고 있음
 - 소비도 견조한 고용·소득의 영향으로 회복되고 있음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6월 경기동향 지수(일치지수, 2010년 100)는 전월보다 1.4p 상승한 117.2를 기록
 - 전월과 비교 가능한 7개 지표 중 생산, 출하 등 5개 지표가 개선
 - 일본 내각부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조판단을 9개월째 유지

자료 : 내각부

□ (전 망)

- 최근 경기는 일손부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성력화를 위한 설비투자로 대체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경기 체감도 개선으로 내구소비재의 구매를 늘리는 등 내수주도의 회복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앞으로 일본경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회복과 공공투자의 증가, 견조한 개인소비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106.3으로 전월보다 1.6p 상승
 - 다만, 물가상승의 움직임이 둔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내수주도의 경기회복이 지속력을 가질지는 의문

<GDP>

- 일본 내각부가 7월 14일 발표한 2017년 2분기(4-6월기) GDP(속보치)는 실질 전기비 1.0%, 연율 환산으로는 4.0% 증가함
 -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견조를 보여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한편, 기업의 수익증가와 고용환경의 개선 영향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함.
 - 플러스성장은 6분기 연속으로 11년만의 최장기간 지속됨
- 실질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1.3%, 외수는 0.3%로, 내수의 대부분을 점하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개인소비로 전기비 0.9% 증가, 6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함. 음식서비스와 에어컨 등 백색가전, 자동차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임
 - 개인소비에 이어 설비투자도 건설관련, 공작기계, 소프트웨어 등의 투자가 호조를 보여 전기비 2.4% 증가함. 설비의 갱신수요 외에 일손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성력화 투자가 활발, 공공투자도 전기비 5.1% 증가
- 특히 2분기에는 작년가을부터 일본경제를 견인해온 외수를 제치고 내수가 앞지름. 견조한 해외경제가 국내 생산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내수가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수출은 전기비 0.5% 감소, 4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대중 스마트폰 판매 감속으로 전자부품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큼
 - 수입은 전기비 1/4%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증가에 기여한 외에 견조한 내수를 반영하여 공공투자와 주택건설자재의 수입이 활발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5	2016	2015		2016				2017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전기비			0.2	△ 0.2	0.6	0.3	0.3	0.4	0.4	1.0p)
전기비연율	1.2	1.0	0.9	△ 0.8	2.3	1.4	1.3	1.7	1.5	4.0p)
전년동기비			2.0	0.9	0.5	0.9	1.1	1.7	1.5	2.0p)

자료: 내각부, p)는 1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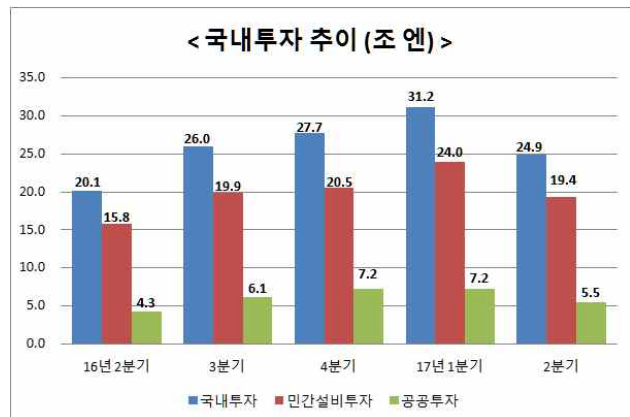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7.2분기 국내투자, GDP의 23.3%

- '17.2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20.1% 감소한 24.9조 엔으로 GDP의 18.5%

□ (민간설비투자)

- '17.2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19.4조 엔, 국내투자의 78.1%를 차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7년 6월 조사)에 의하면, 전 산업의 2017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과잉감도 개선경향
- 앞으로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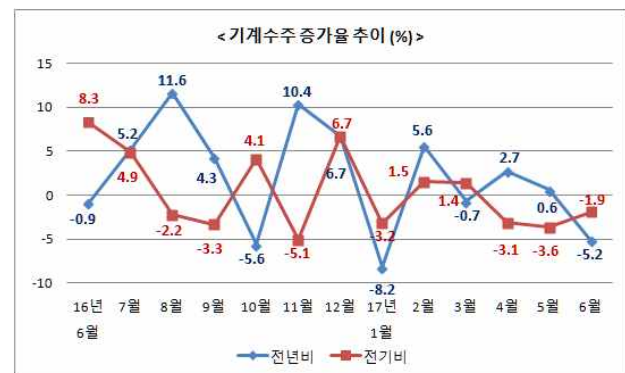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6월 기계수주는 정보통신기계의 부진으로 전월비 1.9% 감소

□ (공공투자)

- '17.2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5.5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1.9%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의 견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17.5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동월비 34.9% 증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계속 나타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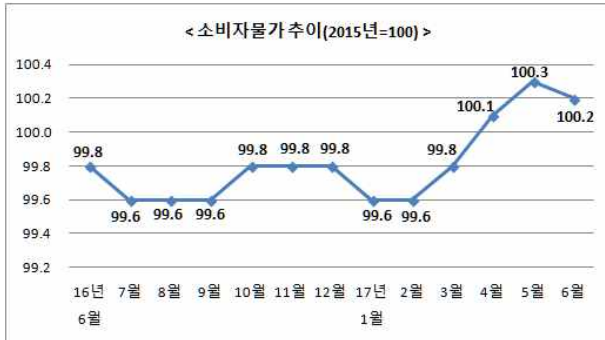
□ '17.6월 소비자물가 0.1% 하락

- '17.6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0.2(2015년= 100)로 전월비 0.1% 하락
 - 전년동월비로는 0.4% 상승, 에너지가격이 상승을 견인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완만하게나마 상승폭(전년동월비)이 확대될 것이나 횡보권내에서 추이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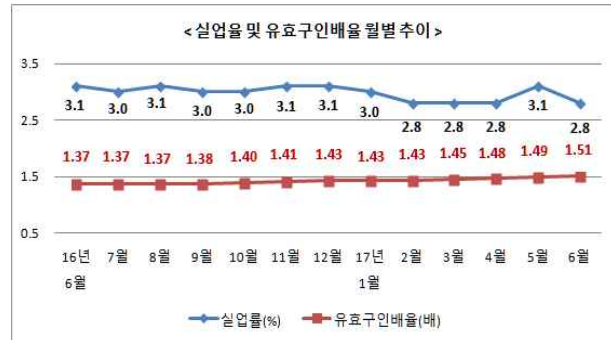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7.6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보다 0.3%p 하락한 2.8%
 - 완전실업자 수는 189만 명으로 전월비 16만 명 감소
 -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모두 감소
 - 취업자 수는 6,531만 명으로 12만 명 증가
-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상승
 - '17.6월 유효구인배율도 1.51배로 전월비 0.02p 상승. 이는 1974년 2월 1.53배 이후 43년 3개월 만에 높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노동수급의 팽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운수·우편업, 건설업 분야에서 구인수가 증가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중 합) 무역수지 흑자 축소

- '17.7월 무역수지는 4,188억 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감소
-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의 감소폭을 상회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2,034억 엔에서 2,561억 엔으로 확대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874억 엔에서 6,470억 엔으로 확대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521억 엔에서 2,096억 엔으로 축소

< 2017년 7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7.6월			2017.7월			2017.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6.6	9.7	11.9	6.5	13.4	-1.7	44.3	10.2
수 입	6.2	15.5	1.6	6.1	16.3	-1.5	42.8	12.9
수 지	0.4	-35.9	-	0.4	-17.0	-4.8	1.4	57.1

자료 : 재무성

□ (수 출) '17.7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7.7월 수출은 전월대비 1.7% 감소한 6조 4,949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3.8% 감소

- 5대 수출 품목 및 수출순위 모두 전월과 변함이 없음
 - 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원동기의 수출 증가폭이 5.9%로 가장 큼
 - 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7.1%로 가장 큼

< 2017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7.6월			2017.7월			2017.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10,451	5.0	29.7	10,225	6.0	-2.2	65,975	2.2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291	11.3	10.9	3,393	11.8	3.1	22,294	11.0
3	자동차부품	3,239	13.1	15.9	3,333	15.8	2.9	22,194	15.5
4	철강	2,764	19.0	0.1	2,567	5.3	-7.1	18,909	13.8
5	원동기	2,225	11.1	10.1	2,357	20.9	5.9	15,710	14.1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아세안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4.6%로 가장 큼
 -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5.4%로 가장 큼

< 2017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7.6월			2017.7월			2017.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3,043	7.1	20.5	13,187	11.5	1.1	86,682	5.4
2	중국	12,478	19.5	11.7	12,114	17.6	-2.9	81,469	17.7
3	ASEAN	9,567	7.5	6.9	10,009	17.6	4.6	66,455	11.7
4	EU	7,262	9.6	4.9	7,211	8.3	-0.7	49,558	5.2
5	한국	5,051	26.7	8.4	4,776	16.8	-5.4	34,375	11.0
6	대만	3,746	1.2	12.3	3,787	5.5	1.1	25,886	7.9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7.7월 수입도 금액, 물량 모두 감소

- '17.7월 수입은 전월비 1.5% 감소한 6조 761억 엔
 - 수입물량도 전월비 1.0% 감소
-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의약품 대신에 의류·동부속품이 포함된 가운데, 석탄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
 - 의류·동부속품의 수입증가폭이 20.2%로 가장 큼

< 2017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7.6월			2017.7월			2017.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4,780	3.1	-9.3	5,452	7.9	14.1	40,844	32.2
2	액화천연가스	2,962	43.9	-4.3	3,302	46.8	11.5	23,444	23.8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2,375	14.4	13.1	2,419	18.5	1.9	15,641	7.2
4	의류·동부속품	1,981	-1.3	-3.5	2,381	1.4	20.2	16,611	-0.3
5	석탄	2,485	115.9	14.3	2,069	67.7	-16.7	15,394	72.4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6.0%로 가장 큼

- 수입감소 품목 중에서는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13.5%로 가장 큼

< 2017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7.6월			2017.7월			2017.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4,511	5.2	1.5	14,675	13.1	1.1	102,782	5.2
2	ASEAN	9,568	15.8	2.1	9,663	24.7	1.0	65,857	13.0
3	EU	7,263	11.6	-0.9	6,882	3.1	-5.2	48,886	3.7
4	미국	7,169	19.3	6.8	6,717	13.9	-6.3	46,988	11.1
5	호주	4,092	83.0	18.2	3,538	36.1	-13.5	25,313	39.4
6	한국	2,530	12.0	-2.0	2,681	21.9	6.0	17,999	16.2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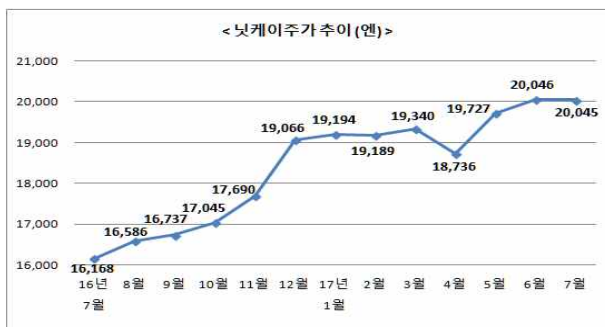
3.엔저 · 주가보합 · 금리상승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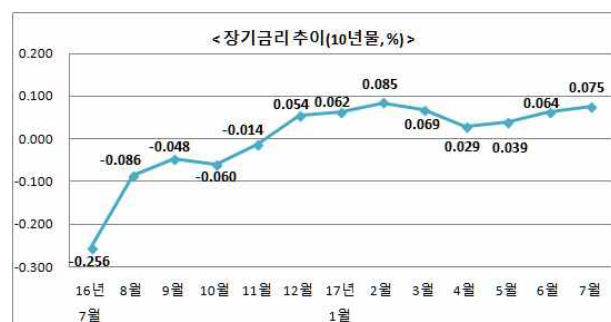
○ '17.7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0.001% 하락한 20,045엔

□ (금 리)

○ '17.7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25.0% 상승한 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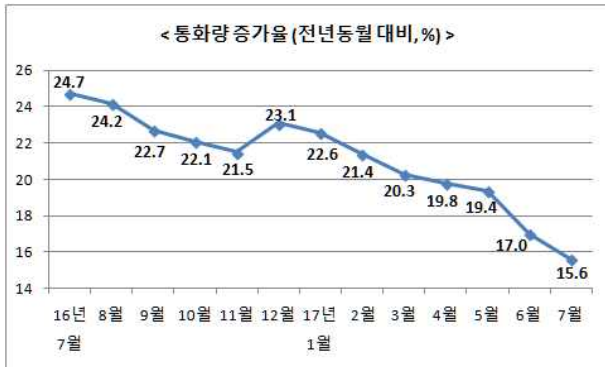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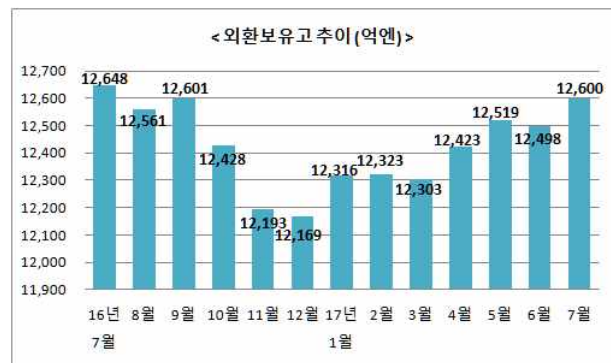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7.7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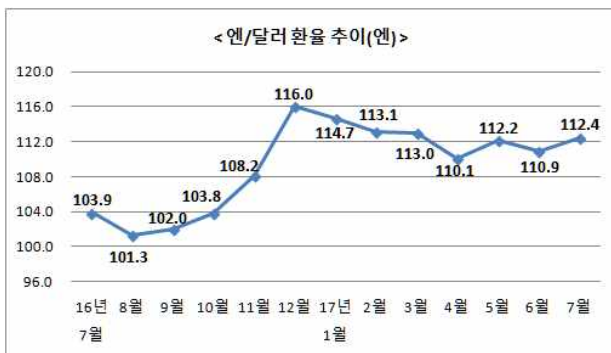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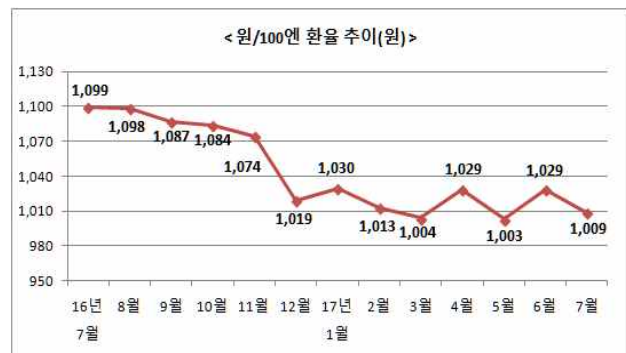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율)

- ‘17.7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1.4% 하락한 112.4엔(엔저)
- ‘17.8월 들어서는 8월 21일 현재 109.4엔으로 다소 엔저세 약화
- 최근 엔저세 약화는 미국이 물가안정 하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북미 긴장 고조를 배경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임
- 그러나 일본의 금융완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엔저 반전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음
- ‘17.7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09원으로 전월의 1,029원에 비하여 1.9%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감소

□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과 미주 지역에 대한 투자감소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감소

○ '17년 6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5,248억 엔으로 전월비 5.0%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6	2016			2017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5월	6월	1-6월
금 액		681,657	127,675	186,332	171,402	207,560	37,111	35,248	312,718
증가율	전기비	-2.1	-35.0	45.9	-8.0	38.2	13.1	-5.0	-
	전년동기비	-2.1	-13.7	5.8	-21.2	3.2	-5.3	-33.9	-5.7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

○ 최대투자지역인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가 19.3% 감소

- 미국에 대한 투자도 전월비 2.2% 감소

- 對 한국 직접투자는 341억 엔으로 전월비 6.3% 감소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6		2016		2017				
	금액	증가율*	4분기		1분기		6월		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대세계	681,657	-1.7	171,402	-8.0	207,560	21.1	35,248	-5.0	312,718
아시아	80,321	-43.3	20,555	18.8	19,928	-3.1	7,131	20.8	38,986
중 국	13,076	-10.8	3,567	19.7	3,398	-4.7	1,698	68.8	7,119
한 국	3,461	-26.6	912	25.1	882	-3.3	341	-6.3	1,908
북 미	181,747	-23.4	38,586	22.8	51,436	33.3	13,079	-1.3	91,082
미 국	176,406	-23.4	37,109	22.1	50,528	36.2	12,670	-2.2	83,530
중남미	36,110	58.7	9,125	-54.6	3,998	-56.2	820	-23.5	5,860
유 럽	366,263	35.8	95,998	-15.6	118,330	23.3	12,851	-19.3	158,468
대양주	12,925	-32.4	5,049	189.7	3,379	-33.1	560	116.2	4,868
중 동	1,581	-12.4	172	26.5	947	450.6	75	70.5	1,210
아프리카	7,297	6.6	1,919	-0.6	1,762	-8.2	725	12.1	3,611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하반기 이후 일본경제전망

□ 내수 주도성장 지속

- 일본경제가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8월 15일자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금년 2분기 실질GDP성장률이 6분기 연속 플러스를 보임에 따라 민간예측기관에서는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수출 외에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되고 있어, 임금·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회복의 지속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비 연율 환산으로 4.0% 증가함. 이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내수임
 - 특히 일손부족의 영향으로 기업의 성력화 투자가 호조를 보인 외에,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가계도 외식 등 소비에 전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3분기(7-9월기)에도 경기는 회복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2분기에 부진했던 해외수요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임

□ 반도체 관련 호조

- 기업부문에서는 반도체가 스마트폰의 고기능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음
 -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디바이스 공업의 2분기 평균재고가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증산여지가 큼.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주도 견조세를 보일 전망

□ 자동차, 가전 등 내구소비재가 소비지탱

- 가계부문에서는 자동차와 가전 등 내구소비재가 소비를 지탱해주고 있음
 - 리먼 쇼크 이후 소비자극책으로 구입했던 내구소비재가 교체구매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임

□ 유가하락도 경기에 순풍으로 작용

- 유가하락의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휘발유는 수도권 등에서 상반기 중 대형연휴로 저렴해 짐. 항공기의 연유특별부가운임도 8월 발매권부터 하락

□ 2017년도 GDP성장률 1.8%

-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15개 민간경제연구기관의 2017년도 평균 실질 GDP 전망치는 평균 1.8% 증가로 나타남
 - 이것은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가 발생한 2013년도(2.6%증가)이후 최고치로 일본정부가 목표로 하는 2% 성장에도 접근하고 있음
 - 분기별로 보면, 각 연구기관 모두 3분기에는 2분기의 반동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 15개사 평균으로는 전기비 연율 0.3% 증가. 다만 4분기 이후는 1%정도의 증가로 회복,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물가상승 압력도 서서히 높아질 전망

□ 경기회복 기간도 최장기록 가능성

- 경기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15개사 모두가 2017년도 중에는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 그중 과반인 9개사는 2020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회답
 - 2012년 12월 시작된 지금의 경기회복이 2017년 9월까지 계속되면 고도성장기간인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의 「이자나기경기」를 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두 번째로 길게 됨
 -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예측대로라면 이자나기경기 추월을 시야에 두고 있음

□ 리스크 및 불안요인

- 한편 리스크도 존재하는데, 하나는 임금인상의 불발임
 - 일본경제신문은 다이와 종합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기업이 일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잔업삭감 등으로 코스트를 억제하는 경우 임금의 증가 및 소비확대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음
- 또 하나의 리스크로 경기회복을 견인해온 해외에도 불안재료가 있음
 - 미즈호 증권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은 올 가을 공산당대회 이후 성장이 둔화, 세계경제도 정체색이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
 - 나아가 긴박한 북한정세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엔고·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동요를 유발하게 되면 기업이나 가계의 심리가 냉각되어 일거에 경기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 AI용 반도체에 대한 개발지원

□ AI 전용 반도체 소프트·설비를 국가가 매입

- 일본 경제산업성이 AI(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등에 특화된 반도체를 대상으로 벤처기업과 연구자에 의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 일본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모노즈쿠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시작단계에서부터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외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움. 국가가 대신 나서서 전용 소프트나 설비를 매입하여 첨단분야의 개발과 육성 환경을 정비해줄 방침임
- AI는 방대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이에 맞는 반도체가 중요함
 - 미국의 구글이나 인텔 등이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에 착수하는 등 경쟁환경이 치열해지고 있음

□ IoT 활용에 전용반도체가 핵심

- 일본의 산업구조를 보더라도 모노에서 서비스로 산업의 비중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AI 외에 모든 모노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때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용 반도체가 핵심임. 범용성이 높은 반도체시장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쟁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상임
- 일본 국내에서는 현재 대기업 외에는 프리포워드·네트워크와 디프인사이트 등이 개발을 추진 중임

□ 전용 반도체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

-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임
- 일본경제신문(2017.8.15.)에 의하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전용소프트가 필요, 연간 5억-10억 원의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함. 전용소프트를 사용하여 설계한 반도체의 동작을 검증하는 설비도 10억 엔 정도로 거액임
- 여기에서 또 비용이 추가됨. 설계된 반도체의 원판을 만드는데 5억 엔 정도, 원판으로부터 시제품을 만드는데 수억 엔이 소요됨. 설계에서 시작까지 적어도 수십억 엔의 비용이 듦

□ 국가가 매입한 전용 소프트웨어·설비를 벤처기업과 연구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케 함

- 신산업은 국가가 대신 전용소프트나 설비를 계약·구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초기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벤처기업과 연구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케 함
- 지원거점의 설치장소로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독립행정법인이나 대학을 상정하고 있음
- 노하우에 지식이 있는 인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 대형 반도체업체와의 제휴도 필요함

□ 일본정부 2015년경부터 AI 연구 추진

- 일본정부는 2015년경부터 산업기술종합연구소나 이화학연구소에 연구거점을 설치하는 등, AI 연구를 추진해왔음
- 이번 경제산업성이 전용반도체 개발지원에 나선 것은 AI와 IoT기술의 보급에서 차기 경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임

□ 현장의 데이터 처리는 일본기업이 승산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닷·컴 등이 이미 패권을 장악하고 있음
- 한편 자동운전이나 스마트공장 등 현장에서의 데이터처리 분야에서는 일본기업에 증기나 승산이나 개척여지가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보고 있음
- 도요타 자동차나 인텔이 이달 커넥티드카(자동차와 IT 기술을 융합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실현을 위해 데이터 처리의 기반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컨소시엄 발족을 공표하는 등 이 분야에서의 주도권 쟁탈도 본격화되고 있음

□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차세대형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이 같은 조류의 변화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등 풀뿌리 수준에서의 혁신적인 기술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정비할 방침임
- 차세대형 반도체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경제산업성은 2018년도 예산으로 백수 십억 엔을 요구할 계획임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감소

□ (중 합)

- '17.7월 대일무역적자는 2,292백만 달러로 전월보다 감소
 - 그러나 대일무역적자는 대일수출, 대일수입 모두 감소하는 축소 균형적 축소
- '17.7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6%에서 4.4%로 하락한 동시에, 대일 수입의존도
도 전월의 11.8%에서 11.6%로 하락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8%에서 7.6%로 하락

< 2017년 7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7.6월			2017.7월			2017.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374	10.4	7.6	2,166	4.8	-8.8	15,403	13.5
대일 수입	4,775	22.8	9.0	4,459	12.1	-6.6	31,552	21.2
무역 수지	-2,401	38.1	10.4	-2,292	20.0	-4.5	-16,150	29.7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7. 7월 대일 수출은 2,166백만 달러로 전월비 8.8% 감소
 - 이는 동기간 중 일본의 수입증가율 -1.5%와 비교하여 대일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

	대일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6월	10.4	7.6	13.6	14.3	15.5	1.6
2017.7월	4.8	-8.8	19.5	-4.8	16.3	-1.5
2017.1-7월	13.5	-	16.3	-	12.9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출품목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산업기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 수출이 감소
 - 산업용 전자제품의 대일수출감소폭이 -23.2%로 가장 크며, 이어 전자부품이 -21.8%로 뒤를 잇고 있음

< 2017년 7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7.6월			2017.7월			2017.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374	10.4	7.6	2,166	4.8	-8.8	15,403	13.5
1	철강제품	345	43.1	1.2	327	21.6	-5.2	2,273	33.8
2	광물성연료	227	29.5	-13.4	202	8.1	-11.0	1,633	46
3	정밀화학제품	165	26.7	42.2	135	-2.2	-18.2	882	11.9
4	전자부품	156	-4.0	9.9	122	-14.8	-21.8	981	-4.0
5	석유화학제품	136	18.0	-4.9	121	3.9	-11.0	954	37.7
6	수송기계	138	11.6	16.9	116	-2.1	-15.9	931	9.6
7	산업용전자제품	142	-19.7	37.9	109	-10.1	-23.2	846	7.5
8	기계요소공구·금형	101	4.0	6.3	95	0.5	-5.9	644	0.2
9	산업기계	81	24.2	26.6	89	52.7	9.9	462	11.4
10	농산물	96	14.8	14.3	87	4.5	-6.5	601	1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7.7월 대일수입은 4,459백만 달러로 전월비 6.6%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5.0%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시사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6월	22.8	9.0	19.8	3.2
2017.7월	12.1	-6.6	15.5	-5.0
2017.1-7월	21.2	-	20.4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입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산업기계와 플라스틱제품, 정밀화학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대일수입이 감소

- 대일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과 철강제품의 -15.4%로 가장 큼
- 대일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기계의 증가폭이 5.2%로 가장 큼

< 2017년 7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7.6월			2017.7월			2017.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 계	4,775	22.8	9.0	4,459	12.1	-6.6	31,552	21.2
1	정밀기계	825	224.3	17.5	712	96.1	-13.7	4,842	179.7
2	전자부품	540	35.7	7.8	535	13.1	-0.9	3,657	10.3
3	철강제품	531	10.1	10.2	449	-8.7	-15.4	3,486	16.1
4	정밀화학제품	320	-6.7	2.6	325	2.0	1.6	2,316	4.0
5	석유화학제품	329	-0.1	-14.1	314	2.4	-4.6	2,652	20.6
6	수송기계	258	15.3	13.7	256	19.4	-0.8	1,532	5.2
7	기초산업기계	289	16.8	19.4	256	14.0	-11.4	1,882	11.6
8	산업용전자제품	286	8.1	26.0	242	-12.6	-15.4	1,709	-4.6
9	산업기계	194	0.2	-3.0	204	5.6	5.2	1,299	5.9
10	플라스틱제품	196	3.1	6.5	200	5.3	2.0	1,334	5.6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3분기 연속 증가

□ (동 향) '17.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3분기 연속 증가

○ '17.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412백만 달러로 전기비 1.2% 증가

- 증가폭은 전기의 13.4%에 크게 못 미침
- 건수 면에서도 전기비 42%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49.2%의 큰 폭 증가

○ '17.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81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14.4% 증가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 달러, %) >

	2015		2016		2016.4분기		2017.1분기		2017.2분기		2017.1-2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15 (-10.5)	1,665 (-33.1)	299 (-5.1)	1,246 (-25.2)	91 (40.0)	359 (85.1)	69 (-24.2)	407 (13.4)	98 (42.0)	412 (1.2)	167 (16.8)	819 (14.4)
전체 외국인투자	2,698 (9.5)	20,909 (5.1)	2,987 (10.7)	21,299 (1.9)	844 (17.9)	6,250 (39.0)	632 (-25.1)	3,851 (-38.4)	655 (3.6)	5,745 (49.2)	1,287 (-9.9)	9,596 (-9.9)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일본 다케다제약이 바이오 신약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약 체결(2017.8.21.코메디닷컴뉴스)
- 이번 계약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 신약 관련 임상, 허가, 상업화(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다케다제약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동 투자 및 협력(co-work)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비즈니스 모델임
- 일본 니타젤라틴과 한국 삼미산업 합작법인이 3천만 달러를 투자해 당진 송산 2-1 외국인투자지역 부지에 식품·의약품 젤라틴 생산 공장을 건립(2017.7.24. 연합뉴스)

□ **(시사점)**

-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엔저에 따른 일본 기업들의 해외투자유인 감소와 유턴 사례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7.7월~2017.8월)

□ 국내 기관

- 『일본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8월26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17144&searchtext=&volumeid=4498&searchindex=-1
- 『일본 시니어 시장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KOTRA, 2017년 8월14일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8096&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
-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8월9일
<http://www.hri.co.kr/storage/newReList.asp>
- 『일본은행(BOJ)의 인플레이션을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8월5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217816>
- 『일본의 엔겔지수 급등의 배경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8월5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217819>
- 『2017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KOTRA, 2017년 7월31일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8015&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

□ 일본 기관

- 『에너지·환경기술의 세계적 이노베이션 촉진·보급을 위한 동향조사 보고서』 경제산업성, 2017년 8월15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8FY/000526.pdf
- 『의료·간병 분야의 제 4차 산업혁명 동향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산업성, 2017년 8월15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8FY/000527.pdf
- 『외국·외자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2017년도판)』 JETRO, 2017년 8월10일
<https://www.jetro.go.jp/invest/support.html>
- 『IoT사례와 그 본질 : 산업과 기술의 비교연구 보고서』 일본상공회관, 2017년 8월 10일
<https://shokokaikan.or.jp/jouhoukoukai/pdf/sangyo28.pdf>
- 『일본에서의 거점설립방법』 JETRO, 2017년 8월9일
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modelcase.html
- 『서플라이체인을 기점으로 한 경영기반 구축』 노무라종합연구소, 2017년 8월8일
<http://www.nri.com/~media/PDF/jp/opinion/teiki/chitekishisan/cs201706/cs20170607.pdf>
- 『일본기업 해외전개사례집』 JETRO, 2017년 8월8일
https://www.jetro.go.jp/ext_images/_News/releases/2017/ed940267a2567f5b/JJ_jirei_2017.pdf
- 『제 4차산업혁명의 국제비교』 미쯔이스미토모에셋메니지먼트, 2017년 8월8일
<http://www.smam-jp.com/documents/www/market/report/keyword/global/key170807gl.pdf>
- 『일본의 산업별 생산성동향과 경제재생을 위한 생산성향상』 자본시장연구회, 2017년 8월8일
<http://www.camri.or.jp/files/libs/929/201708071226593163.pdf>
- 『방일외국인 소비의 경제적효과』 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17년 8월5일
http://www.apir.or.jp/ja/research/files/2017/08/APIR_Trend_Watch_42_final.pdf

2. 주요 경제 일정

<8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 냉동수입소고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2분기(4~6월)의 냉동소고기 수입량이 관세긴급조치 발동 기준을 초과, 냉동소고기의 관세가 '19.3월말까지 인상(38.5%→50%) - 연금 수급자격을 위한 가입 기간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으로 새로 68만 명이 연금을 받게 됨
3	- 일본 내각개조(제3차 아베 제3차 개조내각 출범) 및 자민당 임원 인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캄보디아 정상회담(도쿄) - ASEAN+ 3 외무장관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필리핀)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4~6월) GDP 속보치(내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대비 1.0%, 연율 4.0% 증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방일 외국인객수(추계치) 통계 발표(일본정부 관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수는 268만 1,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 월별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 * '17.7월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64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1% 증가, '17.1~7월 방일 한국인 총계는 403만 9,9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2.8% 증가
17	- 일본 북방영토의 공동경제활동 등에 관한 日-러시아 차관급협약(~18일까지, 모스크바)
22	-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대책 '동토벽(凍土壁)'의 전면 동결 개시
24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1년 연장
28	- TPP 수석교섭관 회의(~30일까지, 시도니)
30	- 영국 메이 총리 방일(~9/1일까지)

<9월(예정)>

일자	주요 내용
4	- 아소 부총리 미국 방문, 미국 펜스 부대통령과 회담
6	- 러시아 동방경제포럼(~7일까지)에서 한일 정상회담
미정	- 아베 총리 인도 방문